

매화수 화장품 이탈리아 이어 헝가리 수출길 열려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살베오 스킨케어

‘PLANET DESIGN BT’와 계약 올해 4월 이탈리아 이어 유럽 수출 매화수 성분 토너·세럼·크림 3종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3종의 수출길이 이탈리아에 이어 헝가리까지 확장된다.

광양시는 한의학박사 25년 경력의 아로마테라피 전문가인 ㈜메사코사 복영옥 대표가 개발한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3종을 올해 4월 이탈리아 수출계약에 이어 헝가리 화장품 판매 업체 ‘PLANET DESIGN BT’와도 5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광양시 소재 ㈜메사코사에서 체결한 수출계약식에는 ㈜메사코사 복영옥 대표와 ‘PLANET DESIGN BT’ 대표 도로차 키시(Dorottya Kiss), 이화엽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복영옥 ㈜메사코사 대표는 “이번 헝가리 계약업체와는 지난해 10월 코트라 행사를 통해 만나게 됐고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우수한 제품력으로 수출계약까지

이뤄지게 됐다”면서 “제품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헝가리 내 독점권을 1년간 유지해 주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도로차 키시(Dorottya Kiss) ‘PLANET DESIGN BT’ 대표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수입브랜드를 찾다가 복영옥 대표를 박람회에서 만난 후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까지 왔다”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갖고 메사코사 화장품이 유럽 진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사코사가 개발해 수출하는 ‘살베오’는 홀리스틱 뷰티 스킨케어 화장품 전문 브랜드다.

광양에서 재배된 유기농 매화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매화수토너, 매화수세럼, 매화수크림 3종이 수출된다.

이번 화장품은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 비건 인증, 클린뷰티 인증, 유럽화장품 인증, 영국화장품 인증, 유아시아 인증까지 받은 100% 천연화장품으로, 각종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검증받았다.



㈜메사코사 복영옥 대표와 PLANET DESIGN BT 대표 도로차 키시, 이화엽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지난 22일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3종 수출 계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제품 개발자 복영옥 대표는 아로마테라피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매화봉우리 추출물의 항산화 및 피부미백, 항노화 특성 연구’를 통해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화수를 활용한 상품화에 이어 수출계약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제품생산과 수출개척에 앞장서 오신 복 대표께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귀농인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영옥 대표는 2014년 봉강면 하조마을로 귀농해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 개발로 2019년 광양시로 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상품화 지원사업을 받아 매화수 화장품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화장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각종 약초를 실생활에 쉽게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은 물론 에센셜오일과 식물성오일을 포함한 100여 종의 제품을 개발해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을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착한가격업소 16곳 선정 장흥군, 가격·위생상태 등 평가

장흥군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 16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대비 저렴한 가격, 청결한 위생상태,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를 뜻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요식업 15개소, 숙박업 1개소로 총 16개소이다.

장흥군은 지난 4월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했고 현지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은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간판 부착과 함께 인센티브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도화면 지족도-죽도 사업 가동 고흥군, 2027년까지 100억원 투입

고흥군은 해양수산부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2) 대상지로 선정된 도화면 지족도-죽도 권역의 앵커조직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해당 사업지역에서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족도-죽도 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지역혁신사업을 실행하는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이사장 남철관)이 앵커조직으로 참여해 총 5인(상근 4명, 비상근 1명)이 지역과 밀착해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지원한다.

개소식에는 도화면장, 군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방향 소개, 축사 및 격려사, 커피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참석 기업과 △고흥군 어촌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브랜드 및 콘텐츠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농업회사법인 ㈜담우(대표 모윤숙), ㈜쿠기아(대표 김명신),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대표 조영주), (사)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회장 이형모)는 향후 지족도-죽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고흥군 지족도-죽도 지역은 낙후된 어촌 생활·경제·안전 환경 개선 및 인력 정착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4년 동안 100억원을 지원받게 돼 지역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족도와 죽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과 갯장어(하모) 생산지로 고흥군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금강죽목이 위치한 지역이다.

고흥·조진용 기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앞장’ 여수시 소라복지관

여수시는 지난 22일 소라복지관(관장 정성훈)이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 임직원들과 함께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사는 관내 거주 시각장애인 이정관(58) 씨의 집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2024년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주거복지 행복드림 프로젝트 ‘봉사하GO! 세집짓GO!’의 일환이다.

이번에 수리한 이씨의 집은 지난 2월 동절기 소라면 박상후 주무관에 의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보일러 배관 문제로 난방이 되지 않고 물이 새어 나오는 등 마루와 작은 방도 배관이 낡고 누수가 있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소라면 박상후(8급) 주무관은 “시각장애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항상 걱정돼 자주 돌아보는 가정이었다”며 “봉사활동과 후원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 이태홍 지사장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정성훈 관장은 “귀한 시간과 노력을 허락해 봉사해 준 REB 순천지사 임직원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난 22일 구례군 용방면 농공단지(자연드림파크)에서 산업안전보건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산업안전보건 합동 캠페인 전개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

구례군은 지난 22일 구례군 용방면 농공단지(자연드림파크)에서 전남노동권익센터(센터장 문길주)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합동 캠페인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고 구례군, 전라남도,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남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례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뇌파 측정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B형 및 C형 간염 검사, 터치 마인드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통해 자연드림파크 근로자와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 책자를 배부하며 직장인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기관의 사업내용을 알렸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혈압·혈당 측정, 인바디 검사를 통한 근육격계 질환 등 건강 상담을 진행했고, 광주전라제주 직업병 안심센터(조선대학교병원)는 직업병 예방 건강정보와 안심센터 업무를 홍보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도,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마음도 건강, 신체도 건강, ‘직장 만들기’ 합동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성현 기자

여수시, 봄철 농촌일손돕기 ‘앞장’

농업기술센터 등 100여명 참여

여수시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농협시지부(지역농협) 직원 등 100여명이 지난 22일 울촌면 가장리 소재 친환경마을밭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들은 울촌면 가장리 친환경마을 재배농가에서 마늘 수확(0.6ha)과 선별작업을 거뒀다. 마늘 수확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 농촌 일손돕기 지원장구를 마련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및 사회

봉사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업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농촌 일손 돕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매년 농촌일손돕기 지원장구를 봄철(4-6월)과 가을철(9-11월)에 중점 운영하며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